쓰기 평가를 통해 본 국어과 창의성 개념 설정의 문제

박종훈*

〈 차 례 〉

1. 서론
2. 기반학문에 따른 창의성의 개념 차이
  2.1.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창의성
  2.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창의성
  2.3. 문학학적 관점에서 본 창의성
3. 검토해야 할 창의성의 개념쌍
  3.1. 과정의 창의성 대 결과의 창의성
  3.2. 내용의 창의성 대 표현의 창의성
  3.3. 표현의 참신성 대 표현의 효과성
  3.4. 국어과 창의성 대 비국어과 창의성
4. 결론

1. 서 론

창의성[1]은 이미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사항이 된 지 오래이다.

* 서울대학교 강사

1) 창의성, 창조성, 창의력 등 다양한 유사 용어들이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창의성'을 사용하기로 한다. '창조성'은 '천지 창조' 등의 예에서 보듯 그 의미 자질에 '거창함'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작은 것의 성취도 중요하게 여기는 필자의(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교육관과 부합하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창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고 있다(김규선, 2003). 국어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표방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가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01).

그러나 국어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창의성 개념은 뚜렷하지 못하다. 국어교육과 창의성에 관한 최근의 한 논의에서는 이의 원인을 '창의적 사고를 포함하여 국어교육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고력의 실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조하연, 2003). 물론 국어교육과 사고력 내지 국어교육과 창의성에 관련된 연구가 그간 어느 정도 축적된 것도 사실이지만[2] 대부분 여러 가지 창의성 개념 중 어느 하나 또는 일상적 의미에서의 창의성 개념을 전제로 진행한 실천적 수준의 연구라 할 것이다.

물론 시대적 요구의 절실함 때문에, 또는 교육 현장에서의 즉각적 활용을 위해, 실천적 수준의 연구들이 선행되고 이 연구들의 결과가 쌓여 일반적인 창의성 개념을 정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념을 우선 정밀하게 다듬은 연후에 이를 실제적 수준에 적용한다면 이는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을 낳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계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관점에 따라 세 갈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관점을 비교·종합한 연후에, 이를 쓰기 평가라는 구체적 실천의 수준에 적용시켜 보며 국어과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의 개념폭을 짚어보고자 한다.

'creativity'는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아닌 '창의성'을 선택하였다.

2) 이삼형 외(2001)는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기반학문이 상이한 국어교육 전공자들이 모여, 그간의 해당 분야의 논의를 집대성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저작에서도 창의성 내지 창의적 사고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천착 혹은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기반 학문에 따른 창의성의 개념 차이

국어교육학계에서 창의성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못한 이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창의성에 대한 연구 자체가 미진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창의성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배경 중 하나는 각 학자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학문의 차이이다. 본고에서는 국어교육학과 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언어학, 심리학, 문학학의 관점에서 창의성 개념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로 한다.[3]

2.1.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창의성

언어학에서는 '창의성'이라는 용어 대신 '창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다. 언어를 기호로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제한된 수의 언어 단위를 이용하여 무한한 수의 문장, 무한한 길이의 문장,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적'이라고 한다[4].

이는 기호로서의 언어 체계 자체에 내재해 있는 '속성'으로서의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명 이러한 관점은 한편 타당한 것이다.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과 비교해 볼 때 가히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는 언어가 인간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인간이 갖는 본원적 창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는 언어가 태생적으로 창의적이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한 창의성의 교육이 필요없다는 무용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문법적 적격문의 생산과 이해 능력[5]을 가졌다는

3) 일반적인 '창의성' 연구의 기반 학문이 아니라 '국어교육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문 영역 3개를 선택한 것이다.

4) 그러나 김진우(1988: 21-22)에서는 'creativity'를 '창의성'이라 번역하고 있다.

5) 언어를 기호로 보는 전통적(미시적) 언어학의 대상은 문장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것만으로 인간은 충분히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일 것이다. 교육에 관한 한 인간은 늘 '배가 고프다.'

2.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언어활동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창의성 연구'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일련의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포괄하는 관점이다. 이 두 관점은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관점에서는, 언어 활동 자체가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말한다. 즉 언어 표현[6] 활동이든 언어 이해 활동이든, 이는 의미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는 주어진 언어 자료로부터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며, 언어 사용자의 배경지식이나 상황맥락 등 텍스트 외적인 단서를 함께 이용하는 추론 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이

다. 따라서 전통적 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 능력이란 곧 적격문의 이해와 생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6) 국어교육 관련 학문에서 '표현(expression)'이란 용어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용을 생성·조직하고 그것을 적절한 언어 형식으로 표상하고 실체화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text producing process) (예: '국어 이해와 표현 활동')
② 위 ①의 과정 중 내용을 언어 형식으로 표상하는 단계만을 일컫는 말(formalizing process) (예: '쓰기 과정은 내용 생성-내용 조직-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위 ①의 결과로 만들어진 텍스트(produced text)의 형식적 측면. 주로 '내용'의 반대말로 사용됨. (예: '이 글의 표현은 너무 조악하다.')
④ 위 ①의 과정이 특히 발신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 (emotion representing process) (예: '야콥슨이 말하는 언어의 표현적 기능')
'표현'이 갖는 다양한 의미 때문에 (본고를 포함한) 표현 관련 논의에 대하여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문의 정밀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함이 마땅한 일이겠지만, 일단 본고에서는 용어의 생경함을 피하고 논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종래대로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국어교육학계에 널리 수용되어 이론과 실제 층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7] 그런데 구성주의 논의 자체가 교육학 및 교과교육학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터인지라, 위에서 살펴본 언어학적 관점과는 달리 이 관점은 교육적 무용론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관점에 선 언어교육 전공 학자들은, 아래에서 볼 '창의성 연구' 영역의 결과물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언어 활동에서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냈다. 플라워(Flower, 1998: 228-229)가 '창의적인 트리오'라 부르는 계획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등의 구체적인 전략적 방법들(예컨대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의 관점은, 창의성을 심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창의성은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임선하, 1993: 26)이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관점에서는 창의성을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능력 또는 특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이 관점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 일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창의성이 인간의 전반적 특성인지 아니면 인지 과정인지, 산출물인지 아니면 과정인지, 과거의 연장으로서의 새로움인지 아니면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움인지는 심리학 영역 내에서 볼 수 있는 논란거리라 할 수 있다(임선하, 1993: 29-37). 그러나 이러한 논란거리는 오히려 창의성의 여러 차원을 빠뜨리지 않고 검토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특히 창의성이 인간이 지니는 속성 내지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산출물(결과물)에 부여되는 속성이라는 점은 시사할 만하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심리학적 '창의성 연구'의 관점은 교육(학)계에도 널리 수용되어서 교과적 혹은 탈교과적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로 사

7) 쓰기의 경우, 국내에서 이 관점의 이론을 집대성한 저작으로는 이재승(2002)을 들 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보여준 저작으로는 최현섭 외(2003)를 들 수 있다.

용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수용되는 것은 창의성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특성으로서 '새로움(novel)'과 '적절성(appropriateness)'을 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최인수, 2003). 일상적인 의미에서도 창의성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새로움', 즉 '참신성'이기는 하되, 이 '참신성'이 맥락에 적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롭다고만 해서 창의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한 명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성, 즉 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효과성'은 창의성 논의에서 종종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 특성이기도 하다. 예컨대 글을 평가할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은 '표현이 참신하다'고는 하지만 그 표현의 효과가 뛰어난가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

이상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창의성의 개념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창의성은 과정과 결과 등 여러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고, 참신성과 더불어 효과성이 있어야 창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3. 문학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창의성

문학작품의 속성 자체가 창의적일 뿐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는 과정 또한 창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기반하여 문학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학교육 전공 학자들은 문학교육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많은 저작을 남겼다.[8] 문학교육 영역에서는 국어의 예술적 구성물인 문학 작품을 생산해 내는 과정의 창의성과 그 결과물인 문학작품에 드러난 창의성에 대해 주목한다(김은성, 2003: 67). 이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문학교육은 창의성 내지

8) 대표적인 것으로서 김대행(1998), 김성진(2003), 조하연(2003), 김중신(2003) 등을 들 수 있으며, 우한용(2001) 등 창작교육에 관한 다양한 저작들도 문학교육과 창의성의 밀접한 관계를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의적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교육 분야에서 창의성 개념을 정밀화하기 위한 논의 중 하나로 관습과 창의적 표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관습'과 '창의'는 언뜻 생각하기에 새로 대조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관습은 창의적 표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 최근의 논의이다(조희정, 2002; 김성진, 2003). 이는 사실 심리학 분야에서도 논의되었던 주제인데, 이 분야에서도 역시 과거와 단절된 창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임선하, 1993: 34-37).

그러나 관습을 기반으로 창의적 표현을 산출한다는 사실을 지당한 명제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것이 곧 창의성의 하위 유목에 '관습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창의성은 관습을 기반으로 하되, 관습으로부터 얼마나 일탈되어 있는가가 창의성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문학작품이 아닌, 흔히 '비문학'이라고 불리는 제재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활동은 덜 창의적이거나 혹은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가 하는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다루는 창의성을 결과물의 언어 형식적(formal) 차원인 '표현'[9]에만 국한시킨다면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차원까지 그 개념을 확장시킨다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3. 검토해야 할 창의성의 개념쌍

지금까지 언어학, 심리학, 문학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창의성의 개념

9) 각주 5)번 참조. 앞으로 본고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뒤에 '활동'이나 '과정' 등의 용어가 붙거나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물로서의 표현을 의미한다.

과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창의성의 개념과 특징을 쓰기 평가라는 구체적 실천 층위에 적용하기 위해 더 자세한 논의를 해 보도록 하자. 논의의 생산성을 위해 지금까지 검토한 창의성의 개념과 특징들로부터 몇 가지 개념쌍들을 추출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과정의 창의성 대 결과물의 창의성', '내용의 창의성과 표현의 창의성', '표현의 참신성 대 표현의 효과성'의 세 쌍이다. 아울러 위 논의에서 추출된 개념쌍은 아니지만 생산적 논의를 위해 '국어과 창의성 대 비국어과(?) 창의성'이라는 개념쌍을 추가하였다.

3.1. 과정의 창의성 대 결과의 창의성

창의성은 때로는 '창의력'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창의력'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창의성은 '속성'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속성'은 인간이 지니고 있기도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지니고 있기도 하다. 즉 '창의성'은 '창의력'보다 넓은 개념이다.[10]

그렇다면 창의성은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는 사고 과정과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두 차원 모두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표현 활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텍스트를 생산하기까지의 인지적 과정과 그 결과 만들어지는 텍스트 모두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학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작품의 생산 과정과 그 결과 생산된 작품 모두에 부여될 수 있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이 사고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물에도 부여될 수 있는 속성이라는 점은 창의성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적절성 내지 효과성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사실 사고구술이나 체계적 관찰과 같은 특정한 과정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창

10) '창의성'과 '창의력' 등 유사 상황에서 사용되는 유의어들간의 정밀한 의미 구분에 관해서는, 본고의 관점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김은성(2003)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의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행동의 산물, 즉 결과물을 통해 평가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과물이 창의적인 것이라면 과정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또는 과정이 창의적이면 자동적으로 결과물도 창의적인 것이 되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 실증적 논거는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 질문에 관해서 모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사례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겠지만, 우리가 보통 창의성의 하위 속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창성, 유창성, 민감성, 정교성 등의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창의적 표현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우연히, 사람들에 의해 창의적인 표현이라고 평가받는 결과물을 내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언을 할 수는 없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자주 찾아볼 수도 있는데, 충분히 확산적인 사고를 하고 연관성 없어 보이는 두 대상 간의 결합을 시도했는데도 창의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텍스트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11]

과정의 창의성과 결과의 창의성을 엄밀하게 구별하는 동시에 두 차원을 모두 국어교육의 범주 내에 포함시켜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교육적인 이유이다. 만일 결과의 창의성만을 문제삼는 경우 학생들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산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며 이는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미명 하에 창의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임선하, 1993: 34).

그런데, 과정의 창의성 개념에 대해서는 결과의 창의성 개념과 약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의 조건 중 '효과성'은 오로지 결과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의적 과정은 때로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결과물을 산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정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는 '효과성'이라는 조건은 제외해야 한다. 대신, '확산적 사고를 수행하는가', '떨어져 있는 대상간의 연합을 시도하는가' 등과 같은

11) 임선하(1993: 32-34)는 파슨스(Parsons)의 논의를 빌어,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창의적인 업적을 내놓지 못할 경우도 있음을 주장한다.

방법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창의성의 하위 속성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창성, 융통성, 참신성, 정교성 등이 하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네 가지 속성들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사람들이 행동 과정에서 보이는 심리적 성향들이다. 즉, 과정에서 보이는 속성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참신성'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등의 속성은 결과물에 부여될 수 없다. 예컨대 어떤 창의적인 작품을 보고 '그 작품 참 유창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유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창의성은 과정의 창의성과 결과의 창의성으로 나눌 수 있다. 과정의 창의성에는 유창성, 융통성, 참신성, 정교성 등이 하위 평가 기준이 되고, 결과의 창의성에는 참신성과 효과성이 하위 평가 기준이 된다. 과정과 결과의 두 차원 모두 창의성 평가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되, 과정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는 '효과성'이라는 기준은 제외해야 한다. 국어교육 평가, 더 좁게는 쓰기 평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3.2. 내용의 창의성 대 표현의 창의성

쓰기 활동의 경우, 결과물의 창의성은 텍스트 표현의 창의성과 텍스트 내용의 창의성의 두 차원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는 내용의 창의성이 곧바로 표현의 창의성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며, 반대로 표현의 창의성 역시 내용의 창의성을 보증해 주지는 못한다는 의미도 된다.

우선 내용은 매우 창의적인데 표현은 그다지 창의적이지 못한 예를 들어 보자[12]. 어떤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12) 본고에서는 창의성을 이치적(binary)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질적 차이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즉, 창의성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학적 접근이나 심리학적 접근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활동 자체가 태생적으로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논설문의 경우, 그 글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매우 창의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설문은 장르의 관습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지극히 평이한 표현, 즉 창의성이 부족한 표현으로 서술될 것이다.[13]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표현은 창의적인데 내용은 창의적이지 않은 텍스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라는 술어가 지니는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발상'과 '내용'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행위와 관련된 추상명사가 '행위'를 뜻할 수도 있고 '행위의 결과물'을 뜻할 수도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널리 사용되는 '담화'의 경우도 '말(talk)이나 글(written text)을 만들어 내는 행위'라는 뜻과 함께 '그 결과 만들어진 말이나 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4] 앞서 각주에서 다룬 과정으로서의 표현(expressing)과 결과로서의 표현(expression)의 구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발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발상' 행위의 결과 구체적 '발상'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발상'은 곧 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구성주의적 관점과 독자의 관점에 동시에 서게 된다면 독자의 발상이 곧 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15] 그러나 최소한 필자의 관점에서는 발

---

13) 이 진술은 '대부분의 논설문은 창의적이지 않다'는 진술과 다르다. 우리는 '논설문' 자체와 '논설문의 표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논설문도 충분히 창의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본고에서 정의하는 대로 참신성과 효과성을 띠고 있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상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문학과 쓰기영역이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이러한 논설문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14) 이용주(1993: 24)에 의하면 담화는 '그 부품을 선택 통합해서 통사적 구조체를 만들어 자신이 선택한 의미내용을 표현하는 언어활동이다.'

15) 행위로서의 발상은 결국 소위 '내용'을 생성해 내기까지의 심리적 과정을 뜻한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존 학계에서 통용되는 '내용 생성'이라는 용어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과 독자의 관점에 서게 되면 글의 내용은 독자가 구성해 내는 것이지 필자가 생성해 낸 내용이 고스란히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

상이 곧 글의 내용이 되도록 의도하며 글을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글의 내용은 발상에 기초한다.

그런데 발상은 다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표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발상과 그렇지 않은 발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 듯 검노매라
>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랴
> 님 향(向)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보편적인 해석을 따를 때, 위에 제시된 박팽년의 시조는 수양대군의 무리를 '가마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을 비롯한 충신들의 의지를 '야광명월'로 인식하고 있다. 즉 위 시조의 비유적 표현들은 모두 필자가 대상을 그렇게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발상이 그대로 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다. 물론 인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토씨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표현을 생산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표현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시켜 준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상을 '가마귀'로 인식했는데,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흑염소'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표현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고, 표현으로 직접 이어지는 발상을 '표현결부적 발상'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른바 문학적 발상은 그대로 문학적 표현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결부적 발상에 기초한 내용의 창의성의 평가는 표현의 창의성에 종속된다. 왜냐하면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발상 그 자체가 (필자 차원에서) 그대로 표현으로 이어지며, (독자 차원에서) 표현을 통해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표현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발상도 있다. 이른바 비문

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자가 생성해 낸 내용에 한정된 대상을 일컫는 용어로, 결과물로서의 '발상'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로서의 발상을 생성해 내는 심리적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행위로서의 '발상'을 사용한다.

학적 발상[16]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러하다. 예컨대 논설문에서 담고 있는 주장은 일종의 발상인데, 표현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의원 대다수가 문제가 있으므로 선거를 통해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용(주장과 논거)은 같지만 표현(형식)은 다른 다양한 글로 실체화될 수 있다. 이처럼 가능한 표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발상을 '표현독립적 발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17]

다음에 보게 될 텍스트는 표현결부적 발상과 표현독립적 발상을 비교적 쉽게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여의도충 (Ddannara yeouidos Kin, 2004)

〔원인〕

숙주의 Namollala dis.(나몰라라병)에서 근거했으며 일부 친일충의 생식에 의해 발생한다.

〔기전 및 증상〕

① 영양물질의 유실

영양물질의 탈취는 기생생활의 일차목표로 주로 서민숙주의 혈세가 소멸되며 대기업숙주의 비자금등이 이를 위해 조성된다.

② 조직과 세포의 파괴

숙주(국민)의 정신적 불신임과 짜증, 육체적 피곤함을 유발시켜 스트레스로 인한 발기부전에 이르게 한다.

③ 기계적 장애

지역 분열에 의한 유대 파괴, 공감 형성 폐색이 대표적 예이다.

④ 자극과 염증

건강한 숙주를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먼저 숙주 주변에 빨간약을 유

16) 논의의 편의상 '문학/비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필자가 문학과 비문학을 엄밀히 구분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 '문학적'이라고 함은 문학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함을 뜻하며, '비문학적'이라 함은 문학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뜻한다.

17) 표현결부적 발상은 이른바 문학적 텍스트에, 표현독립적 발상은 이른바 비문학적 텍스트에 각각 정확히 대응된다는 오해가 발생할지 모르겠다. 표현결부적 발상과 표현독립적 발상은 텍스트 유형에 관계없이 어느 텍스트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발상의 두 차원이다.

도 분비 후 환부를 발적(發赤)케 하고 제거하며 이는 특히 기생력이 대다수 숙주로부터 거부당할 때 극에 달한다. 별도의 병명으로 Red complex 라 한다.

⑤ 독성 물질의 산출

여의도충의 대사산물이 숙주에 신경독으로 작용하여 자율신경계 실조증을 유발, 심박동과 호흡속도를 빠르게 하고 불안, 불면, 식욕 저하 등 이른바 재수 없음 증상에 이르게 한다.

⑥ 미생물 침입의 조장

조류독감, 광우병 이전에 미국에서 발생하여 현재까지 유행하는 광전병(미친전쟁병) 미생물 등이 그 예이다.

⑦ 특이점

돔 모양의 뚜껑에 다리가 24개 달린 거대 흡혈(吸血)충으로 먼 곳에서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18]

위 텍스트의 경우 표현결부적 발상은 '국회의원을 기생충으로 인식한 것'이며 표현독립적 발상은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 정도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표현독립적 발상과 표현결부적 발상은 기생충의 특징과 국회의원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의 공통점이라는 연결고리에 의해 상호 연결되고 있어 두 발상간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에 올라오는 많은 글들이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발상을 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이런 식의 표현으로 실체화된 것은 흔하지 않다.

그런데 위 텍스트가 담고 있는 발상 중 표현독립적 발상은 많은 다른 글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표현결부적 발상은 비교적 새로울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질타의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비교적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상이 내용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텍스트의 내용은 어떤 수준에서는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수준에서는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8) http://www.songnlife.com/Ver2/song.php?boardid=song&no=125&action=view&page=0 참조. 전체 텍스트 중 일부만 발췌한 것이다.

그렇다면 표현은 창의성이 높은데 내용 전체가 창의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창의성은 높은데 내용의 일부, 즉 표현독립적 발상에 기초한 내용의 창의성은 떨어지는 경우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주안점의 문제이다. 위 텍스트에서 주안점은 국회의원들을 질타하고 풍자하는 데 놓여 있다. 따라서 표현독립적 발상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필자에게도 독자에게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때로는 표현독립적 발상의 창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맥락이 존재한다. 어려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쓰기 과제일 경우가 그러하다. 이 때, '진부한' 방안은 대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참신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높은 효과성을 갖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한 발상 즉 표현독립적 발상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평가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19]

요컨대 쓰기활동의 결과물인 텍스트의 창의성은 표현의 창의성과 내용의 창의성으로 나눌 수 있고, 내용의 창의성은 (내용이 발상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표현결부적 발상의 창의성과 표현독립적 발상의 창의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표현결부적 발상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는 표현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에 종속되므로 텍스트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는 표현의 창의성과 표현독립적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20]

3.3. 표현의 참신성 대 표현의 효과성

표현의 창의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까? 창의성의 두 가지

19) 표현독립적 발상이 국어교육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한다.

20) 평가 실천의 상황에서는 굳이 '표현결부적 내용'이라는 용어 대신 '내용'이라고만 하고, 그 뜻이 표현결부적 내용임을 감안하여 평가하면 된다.

조건 중 '참신성'을 표현 층위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자. 표현이 '새롭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습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국어교육(문학교육)과 창의성에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김정자(2001: 114)는 창의적 표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관습 안에서의 창의적 표현
  └관습 밖에서의 창의적 표현
② 새로운 관습의 창조
③ 일탈적 표현

이러한 구분은 창의적 표현은 관습과 대립적이기보다는 관습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오늘날 창의적 표현으로 인정받는 많은 문학작품들은 한편으로는 언어학적 규범을 준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장르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습 안에서 창의적 표현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작품 전체가 창의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 표현의 국지적(local) 면이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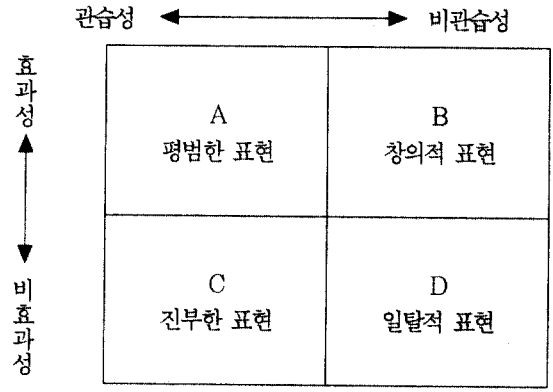
그러나 관습 안에서의 창의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서 관습 자체가 창의성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습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다른 수준에서의) 관습에서 벗어나 있기에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표현의 창의성의 평가 기준은 일차적으로 '새로움=탈관습성'이 된다.

그런데 김성진(2003: 93-95)은 김정자(2001)의 구분에 대해 '관습 대 창조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던 기존의 인식을 재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관습의 창조와 일탈적 표현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 수신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관습의 창조와 일탈적 표현을 나누기는 쉽지 않다며 그 예로 이상의 시 『오감도』를 들고 있다. 즉 『오감도』와 같은 전위문학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형성되는 약호 체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기에 수신자의 이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창의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탈적 표현에 새로운 관습의 창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창의성이 상대성을 지니는 개념이어서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시적으로 볼 때 새롭지만 창의적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표현, 즉 일탈적 표현이라고 불릴 만한 표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때 창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효과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롭지만 효과가 없기에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오감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이 작품은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독자에게 어떤 문화적 충격을 가하는 것이 필자의 원래 의도였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창의적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표현이 창의적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습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뚜렷한 동시에 그 표현이 필자가 의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커야 한다. 그렇다면 김정자(2001)에서 말하는 창의적 표현과 일탈적 표현을 구별하는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 그림에서 B가 바로 창의적 표현의 영역이다. 비관습성이 강한 동시에 높은 효과성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D는 일탈적 표현의 영역이다. 비관습성이 강하지만 효과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A는 관습을 충실히 지켰지만 효과도 있는[21] 표현의 영역이 될 것이다.[22] 끝으로, C는 관습을 충실히 지켰지만 효과도 매우 낮은 표현의 영역이 될 것이다.

3.4. 국어과 창의성 대 비국어과 창의성

지금까지 쓰기 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성이 어떤 차원에 관련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차원들은 모두 국어과적인 것인지, 즉 국어과 교육 고유의 것인지, 국어과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교과의 영역으로 넘길 필요는 없는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은성(2003)에 의하면 국어과 창의성은 국어과만의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국어과라는 교과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어과만의 특수한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비국어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쓰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차원의 창의성의 경우, 표현의 창의성은 '국어 표현의 창의성'이므로 당연히 국어과 창의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내용의 창의성인데, 표현독립적 발상에 기초한 내용의 경우 이를 국어과의 특수한 성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글로 쓰는 것이 쓰기 과제일 경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

21) 효과가 있으되 '창의적 표현'에 비해서는 대부분 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그림을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A 영역의 높이는 B영역의 높이보다 다소 낮아야 할 것이다.

22) 기존의 표현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경우는 관습을 잘 지켰지만 창의적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정의 창의성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창의적인 표현(결과물로서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과의 소관이거나 적어도 범교과적인 것이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도 이를 국어과만의 소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글을 쓰는 상황에서 글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낸 발상(내용)을 다른 교과로 넘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로 하위범주화되어 있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도 '내용 생성하기' 범주를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쓰기의 과정이 위와 같고, 위 범주 중 하나에서라도 제대로 적절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적절한 산출물(텍스트)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재구성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내용의 창의성 부분은 국어과만의 고유한 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국어과교육에서, 특히 쓰기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과정의 창의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표현독립적 내용의 생성 과정과 그 결과 텍스트에 담긴 내용이 국어과교육에서 제외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의 효과성과 관련되어 있다. 타 교과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해서, 예컨대 내용 생성하기는 사회 시간에 다루고 내용 조직하기와 표현하기는 국어 시간에 다루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효과도 높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본격적인 통합 교과의 운용으로 한 편의 논설문 쓰기를 통해서 사회과의 목표와 국어과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며,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국어과 창의성을 논할 때 교과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관점에 엄정히 서게 된다면 표현독립적 내용의 생성과정의 창의성 및 그 내용 자체의 창의성은 국어과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나 국어활동, 특히 쓰기활동의 과정과 교육의 효율성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교과란 역사의 산물이며,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과간의 엄밀한 구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쓰기 영역에서 창의성을 평가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개념과 차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 결과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가 기준
쓰기 영역의 창의성	과정의 창의성		유창성 융통성 참신성 정교성
	결과(텍스트)의 창의성	내용의 창의성	참신성 효과성
		표현의 창의성	참신성 효과성

위 표를 해석하여 쓰기 평가를 실천할 때 유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번째 유의점은 위에 제시된 평가 기준 항목들의 총합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참신성과 효과성은 각각 어느 하나만 부족하더라도 텍스트가 창의적이라고 인정받기 어렵다.

두번째 유의점은, '효과성'이라는 평가 기준의 의미폭이다. 텍스트가, 필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문법규칙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물론 반대로 의도적으로 문법규칙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주어진 맥락에 적절하다는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효과성이라는 용어는 정확성이나 적절성, 그밖에 논리성 등 이른 바 '좋은 글'의 요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러나 이 맥락에서만큼은 '참신성'은 포함하지 않는) 용어이다.

쓰기 영역의 창의성 평가의 하위 기준에 일반적인 글 평가의 기준들이 모두 녹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창의성이 쓰기 평

가의 다른 기준 항목들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쓰기 평가의 기준으로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대항목으로 나란히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은 대항목을 '내용, 조직, 표현'으로 분류하고 '표현'의 하위항목을 '단어와 문장 구조의 다양성, 독창적인 표현'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가 실천에서 창의성을 다른 기준들과 동등한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경우는 창의성의 개념에서 효과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즉 '창의성=참신성'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쓰기 영역 평가에서 창의성을 문제삼는 이상, 창의성은 언제나 유일한 대항목으로 존재한다. 즉 창의성의 개념에 통상적인 글 평가 항목들이 녹아 있는 이상 창의성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 수준이다.*

* 본 논문은 2004. 6. 30. 투고되었으며, 2004.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4. 7.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대한교과서.
김규선(2003), "국어과 학습 지도를 통한 창의성 신장 방안", 『논문집』 제38집, 대구교육대학교.
김대행(1998),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국어교육연구』 제5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김성진(2003), "글쓰기에서 관습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16집, 국어교육학회.
김영채(1995), 『사고와 문제해결심리학』, 박영사.
김은성(2003), "국어과 창의성 교육의 관점", 『국어교육학연구』 제18집, 국어교육학회.
김정자(1992), "쓰기 평가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자(2001), "필자의 표현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중신(2003),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김진우(1985), 『언어』, 탑출판사.
김창원(2003), "창의성 중심의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18집, 국어교육학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8), "초등용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국어교육과 사고력』,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우한용(2001), "창작교육의 이념과 지향",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편, 『창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
이삼형 외(2001), 『국어교육학』, 소명출판사.
이상복(2004), "창의적 쓰기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용주(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 I—근본적인 관점』, 삼지원.
이재승(200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임선하(1993), 『창의성에의 초대』, 교보문고.
조하연(2003), "문학의 속성을 활용한 창의적 사고의 교육 방안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제16집, 국어교육학회.
조희정(2002),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영환(2003),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원.
최인수(2003), "창의성 체계 모델의 교육에의 적용", 『창의성과 학교 교육』,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집,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최인자(2000), "창의력을 위한 '문제'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론: 서사 표현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10집, 국어교육학회.
최현섭 외(2003), 『창의적인 쓰기 수업 어떻게 할까』, 박이정.
Flower, L., 원진숙·황정현 공역(1998),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동문선.

〈초록〉

쓰기 평가를 통해 본 국어과 창의성 개념 설정의 문제

박종훈

국어과 교육 요소로서 창의성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했다. 이는 국어교육학 영역에서 창의성 연구 자체가 미진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학자들의 배경 학문의 차이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학계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관점에 따라 세 갈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관점을 비교·종합한 연후에, 이를 쓰기 평가라는 구체적 실천의 수준에 적용시켜 보며 국어과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의 개념폭을 짚어보았다.

쓰기 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창의성은 크게 과정의 창의성과 결과의 창의성으로 나누어진다. 과정의 창의성은 결국 학습자가 쓰기 과정에서 보여야 할 일종의 속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과정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참신성, 민감성, 융통성, 효과성 등으로, 이것들은 모두 속성적 특징을 띤다. 한편, 결과의 창의성, 즉 텍스트의 창의성은 다시 내용의 창의성과 표현의 창의성으로 나누어진다. 내용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참신성과 효과성이 있으며, 표현의 창의성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동일하다. 이는 창의성이란,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속성이라는 창의성 연구의 공리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쓰기 영역에서 창의성을 평가할 때는 효과성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창의성이 곧 참신성과 같은 것으로 판단해 온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효과성이라는 용어에는 규범성, 적절성, 논리성 등 이른바 '좋은 글의 요건'에 해당되는 속성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이란, 이러한 좋은 글의 요건과 병치될 수 있는 일개 평가 기준이 아니라 쓰기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교육의 최종 목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국어교육, 창의성, 쓰기 평가, 참신성, 효과성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creativi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regard to writing evaluation

Park, Jong-hoon

The concept of creativity is not defined clearly in the disciplin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yet due to insufficient research or different viewpoint on creativity. This article reviewed three viewpoint from different study areas and tried to extract some features of creativity with regard to writing evaluation.

The creativity in writing evaluation is divided to 'creativity in process' and 'creativity in product'. Features of creativity in process are students' attributes: novelty, sensibility, flexibility, elaborateness. Creativity in product is divided to 'creativity of contents' and 'creativity of expression'. Features of both creativity are novelty and effectiveness. We must not identify creativity with novelty in writing evaluation excluding effectiveness.

The term 'effectiveness' includes various features that are accepted as properties of good text. Thus creativity is not located at the same level with the properties. It is not a criterion of evaluation but final aim to be accomplished through teaching writing.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reativity, writing evaluation, novelty, effectiveness